

BEYOND 동아!

학과 · 대학을 넘어 (Boundaryless)

대학시절을 넘어 (Entire Life)

한계를 넘어 (Y-Why not)

강의실을 넘어 (On&Off)

규제를 넘어 (New Ground)

타울을 넘어 (Design By Self)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

동아는 지금

109번째 소식지

DONG-A UNIVERSITY since1946



2017 Newsletter 「Dong-A Now」 vol.109

# 동아는 지금

동아대학교

Issue Focus 동아대학교, 또 한 번의 도약

Hot News 주요 행사 및 인물동정

Dong-A People 동문 및 교수, 학생

Happy Donation 발전기금 소식 및 미담

# 동아대학교 또 한번의 도약을 전하는 109번째 소식지



## 동아의 빛나는 밤, 학생들로 물들다

올해 개최된 동아인의 축제 대동제의 전경이다. '동아인'이라는 이름으로 경계 없이 하나가 된 순간들은 대학의 한 역사로, 구성원들에게 빛나는 추억의 필름으로 남았다. 71년의 세월, 100년을 향해 흘러가는 동아대학교의 시간은 21만 동문들의 기록이다.

### 동아대학교 소식지 **동아는 지금** (통권 제109호)

발행일\_ 2017년 9월  
 발행인\_ 한석정  
 발행처\_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T.051)200-6042~3 F.051)200-6015  
 www.donga.ac.kr www.fund.donga.ac.kr  
 디자인\_ 대훈기획 051-898-0330

## 04 Issue Focus

- 05 비전 선포식
- 06 다우이즘&코기도 프로그램
- 07 고도의 전략, 미래전략위원회
- 08 링크플러스 사업 선정

- 10 김태훈 태권도세계선수권 3연패 달성
- 12 젊은 교수들의 성과
- 13 김의숙 겸임교수 법제처장 취임

## 14 Hot News

- 14 동원개발 장복만 회장 명예법학사 수여
- 15 국내 500대 기업 CEO 중 동아대 출신 7명
- 15 '스포츠 명예의 전당' 개관

- 18 로스쿨,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0명 배출
- 19 「만주 모던」 우수학술도서 선정
- 22 문창용 감독 '양두' 베를린영화제 그랑프리상

## 24 Dong-A People

- 24 나의 동아대, 나의 롯데 \_ 신본기 선수
- 26 늦감이 법학도, 사랑을 품다 \_ 김미애 변호사
- 27 한계를 넘어선 넓은 세상으로의 도전! \_ 하은정 변호사
- 28 동아 재능기부봉사단

## 30 Happy Donation

- 30 '같이'의 가치, 함께 스마일!
- 31 오렌지로 전하는 마음
- 31 동원재에 피어난 후배사랑
- 32 벽화에 담긴 따뜻한 사랑

- 34 발전기금 / 장학기금
- 40 후원의 집
- 42 기부안내 / 발전기금 납부 방법

동아대학교가 개교 71주년, 한석정 총장 취임 2년차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가을을 맞이한 승학캠퍼스는 연구·산학협력 중심의 공원형 캠퍼스로서 대학교육 혁신과 함께 서부산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 또 한 번의 도약 혁신과 변화의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는 지난 2월 27일 2017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지역 사립대학으로서의 위기 타개 방안과 새로운 비전 및 발전 계획을 논하는 'BEYOND 동아 선포식' 과 '미래전략위원회 포럼' 을 개최했다. 한석정 총장과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학캠퍼스 리인홀에서 새로운 슬로건 'BEYOND 동아' 를 함께 외쳤다.

##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해, BEYOND 동아

'BEYOND'는 '학과·대학을 넘어'(Boundaryless) '대학시절을 넘어'(Entire Life) '한계를 넘어'(Y-Why not), '강의실을 넘어'(On&Off), '규제를 넘어'(New Ground), '타율을 넘어'(Design By Self) 라는 뜻으로 지역·세계와의 울타리 없는 교육중심 대학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 △소통과 오감을 바탕으로 한 교육자 역할 강화 △교직원 전문성 배양 △동문 중심 동아공동체 조성 △지역공동체 역할 강화 △기업과 공동성장 등을 추구한다. 'BEYOND 동아'의 교육철학은 '동좌문도, 함께 길을 묻다'이며, '도전하고 소통하는 창의인재'라는 인재상을 바탕으로 교육 내실화 및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교육대학으로 우뚝 서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가치는 공동체의식, 자율, 투지, 전문가 정신으로 정했으며, 핵심역량으로는 인성역량, 소통역량, 지역혁신 역량, 글로벌도전 역량, 문제해결 역량, 전문역량을 꼽았다. 이날 선포식은 세계적인 교육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명문사학 동아대학교의 야심찬 출사표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을 기점으로 중장기 발전계획(퀀텀 리프·Quantum Leap 2024) '지역을 품고 세계와 함께 하는 명문 사학'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 △지식·문화 나눔을 통한 사회 기여라는 목표를 설정했고 3대 추진 전략으로 소통하는 공동체, 경계를 넘는 교육시스템, 상생·발전의 네트워크가 발표됐다.

발전 영역으로는 기존의 분야에서 범위를 좁힌 문화, 경영, 교육, 인프라, 연구·산학협력이 확정됐다. 이에 따른 세부계획으로 우수 교육성과 확산, 행정 전문성 강화 및 경영성과 확대, 관리운영 효율화, To-Be 교양교육 혁신, To-Do 전공교육 특성화, 동아문화 창달,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허브로서의 역할 수행 등이 결정됐다. 이날 대학발전기획추진위원회는 13대 핵심성과지표 달성 현황 중 7개 지표가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며 △입학사정관실의 '입학 홍보 활동 강화', △국제교류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취업지원실의 'Post Graduation Volunteering program', △산학협력실의 'R&D 사업 수주 방안 마련', △학생복지과의 '구성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를 우수 실행과제로 선정했다.

'BEYOND 동아' 선포식을 통해 또 한 번 도약하는 동아대학교



### 혁신의 DAUism & 코기토 프로그램

비전 선포식 때 논의된 세계적인 교육중심 대학으로의 목표달성을 위해 동아대학교는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혁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올해 경영대 신입생부터 시행되는 '다우이즘(DAUism)'이다.

'다우이즘'이란 모든 학생이 자기진단을 통해 스스로 미래 진로를 설계해서 뚜렷한 목표 의식과 능동적 학습능력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지적 역량을 강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참인재로 거듭나자는 교육철학이다. 동아대학교는 이에 맞는 교과과정을 개발했으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대인의 독특한 교육법인 '하브루타(Havruta)' 방식을 채택해 1학년 때부터 토론식 교육을 체질화 해나가고 있다.

또 다우이즘에 바탕을 둔 '코기토(Cogito) 프로그램'을 4차 산업혁명의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주요 특징으로 꼽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의 가파른 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경영대학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입생 교육과정 및 전공교육 방식의 획기적 개편 내용을 코기토에 담았다. 교육혁신 프로젝트팀에 의해 완성된 '사고 중심 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성장한 신입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의 촉매, 지식의 공동 창조, 그리고 창의적 리더십을 가진 능동적인 전문가로 양성될 것이다.

코기토 프로그램은 탄탄한 인문소양이 바탕이 되어 하기에 지난 3월부터 경영학과·국제관광학과·국제무역학과·경영정보학과 학생들은 이전보다 강화된 46학점의 기초교양교육 과정을 필수로 이수하고 있다. 이미 2017학년도 신입생들은 '창의적 자기설계', '문학과 사고표현', '세계 속의 한국사', 그리고 '생활 속 수학' 등 교양 과목을 필수로 수강하고 있다.

교수진의 밀착지도가 필요한 과목인 '창의적 자기설계'와 '문학과 사고표현'은 인원을 60명에서 20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적 자기설계' 과목은 모든 분반을 전임교수들이 담당하는 책임지도교수제 형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나머지 교양과목의 경우, 단과대학 간의 융합 및 상호 협력을 통해 경영대 및 인문대 교수진이 자체 제작한 교재와 교수법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 예로 기본 소양과목인 '세계 속의 한국사', '생활 속 수학' 교재에는 대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역사 상식, 경영대 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수학 지식 등 전문 교수들이 선별한 내용을 담아 학생들의 기초 지식을 강화하고 있다.



박천수 박사의 경영학 기반 직업 설명회

**'다우이즘' (DAUism)**  
**동아대 경영대학 교육철학**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지적역량을 강화하고 인성을 갖춘 인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표

---

**'다우이스트' (DAUist)**  
**동아대 경영대학 인재상**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경영학 지식을 바탕으로 상호협력하고 해결중심 사고를 가진 실용적 전공인



### 고도의 전략, 미래전략위원회

동아대학교는 대학의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전략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 지역사립대학의 생존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행보라는 평가를 안팎에서 받고 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한성적 총장이 학령인구 감소, 진학을 하락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국가지원 소외, 대학 서열화로 인한 수도권 진학 집중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만들었다.

△미래전략 및 국제화 △미래지향적 학사조직 및 특성화 △열린 교육시스템 △대학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을 어젠다로 결정했으며,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첫 활동으로 자문위원인 임진혁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지난해 12월 22일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에서 열린 동아대 교원연수회에서 교수 400여 명을 대상으로 'MOOC와 Flipped Learning : 이해와 적용'에 대해 발표했다.

'미래전략 및 국제화' 분야에서는 21세기 대학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비전과 슬로건을 수립하고, 동아시아 거점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이 구체화된다. 자문위원은 이상문 네브래스카대학 석좌교수가 맡았으며, 연구위원으로 박경환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황영현 국제관광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미래지향적 학사조직 및 특성화' 분야에서는 이상훈 파트너스컨설팅 대표가 자문위원을, 김대경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김태영 기획부처장이 연구위원을 맡았다.

'열린 교육시스템' 분야에서는 임진혁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자문위원을 맡았으며, 조규관 교육학과 교수가 연구위원을 맡아 온라인 공개 강의인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활용해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시간·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범차원적인 캠퍼스 교육시스템을 모색한다.

'대학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서는 조승희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자문위원을 맡았고, 정재현 경영학과 교수가 연구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등록금 의존도 경감을 위한 재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수입원의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평생교육원, 산학협력단 등 대학 기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원·교수·실험실습 공동센터 등을 풀(pool)제로 구축해 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할 예정이다.

동아대학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과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사업(URP),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인문역량강화사업(CORE),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을 꾸준히 유치해 각종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 혁신으로 링크플러스를 거머쥐다

동아대학교는 지속된 혁신과 변화의 노력을 인정받아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링크플러스)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017년 한 해 약 44억 3,000여만 원,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5년 간 총 220여억 원을 지원 받게 된 것이다.

대학의 체질을 산업선도형으로 변화시키는 링크플러스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추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후속 사업과 새로 추진하는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동아대는 일반대 산학협력 고도화형 부문에 선정됐다. 서부산 지역과 연계해 대학의 산학협력 역할을 확대하고 △도시문화재생 △산업고도화 △실버바이오·헬스 분야를 특화한 것이 주요했다.

동아대학교는 사회맞춤형 교육 및 창업교육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제조업뿐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츠 및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계 인력 배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위해 산학협력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11개 단과대학 40개 학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동아대만의 특화 브랜드 창출을 준비했다.

그 결과 사회맞춤형 기업지원 체제를 구축할 'DANVI(Dong-A Network Visiting) 센터', 대학의 산학협력 대표 브랜드를 창출할 'MART(MANaging of Regional Tasks)' 운영, 인문·사회·공학 기반 다학제 소통형 인재양성, 도시문화재생 플랫폼을 활용한 창업협동조합, 인문·사회·예체능 분야를 아우르는 'HEARTS(Health, Ethics, ART, Society)' 사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의 아이디어가 모아졌다.

한편 동아대는 지난 2012년 링크사업에 선정됐고, 1단계 사업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단계 사업에 선정돼 교육부와 부산시로부터 5년 간 약 175억 원을 지원받았다.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동아대학교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을 인정받아 교육 세계화에 앞장서는 대학임을 알리기도 했다. 이 역시 교육과정 혁신 및 내실화에 힘쓴 결실로, 동아대는 대학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을 받게 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기간은 3월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3년간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은 2011년에 지정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동아대학교는 지난 2013년에 처음으로 인증 받은 바 있다. 이로써 동아대학교는 GKS(정부초청장학생) 등 대학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특성화 등 교육부 사업에서 가산점을 제공받는다. 교육국제화역량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는 것으로, 동아대는 필수지표인 '중도탈락률 6% 미만'을 충족했으며, 핵심여건 지표인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한국어/영어)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 항목에서 합격했다.



### 대한민국 산업계가 주목하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동아대의 노력은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예로, 지난 4월 1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2016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건축분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건축공학과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공학실무 준비과정의 효율성을 위한 전공심화 교육과정을 △건축구조 △건축시공 및 재료 △건축환경 및 설비로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이를 위한 기초과정으로 △전문교양 △기초과학 및 수학 △전공기초로 세분화해 교과목을 개설한 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공학설계,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교육,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을 교과과정에 포함한 점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산업공학과) 3년 연속 S등급**  
중소기업진흥공단 평가에서 57개 계약학과 중 학사과정에서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중소기업청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원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해 근로자의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고교교육 내실화 기여대학 선정

동아대학교는 지역 공교육 안정화에도 힘쓰고 있다. 그 결과 동아대학교는 대학교육 뿐만 아니라 고교교육에도 모범적인 대학으로 인정받았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2017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계속지원대학에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동아대는 지난 2010년 이 사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 이후 8년 연속 모범적인 대입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12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년간 총 26억5,800여만 원을 지원받아 비수도권 대학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게 됐다.

동아대학교는 대학입시 정상화를 위해 입학전형을 간소화하고 학생부위주전형을 설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왔다. '고른기회 전형' 입학생의 학업역량 강화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인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근간이 되는 입학사정관들의 평균 경력이 58개월로 안정성과 전문성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타 대학에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노력이 돋보였으며, 중·고교 및 교육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대입전형 안내를 확대하는 등 고교교육 내실화에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제공=세계태권도연맹(WTF)

김태훈 선수 프로필

- ▲ 생년월일 : 1994년 8월 15일 ▲ 신장 : 183cm ▲ 몸무게 : 58kg ▲ 출신교 : 원주 평원중-강원체고-동아대 태권도학과 졸업-동아대 대학원 재학
- ▲ 주요성적 : 2013, 2015,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 54kg급 금메달, 2013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58kg급 은메달
- 2014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 54kg급 금메달,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54kg급 금메달, 2015 멕시코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58kg급 금메달
- 2016 리우 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 동메달

## 또 한 번의 도약 도전과 성취의 동아대학교

대학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도전과 성취라는 이름으로 '동아'의 명예를 높이고 있다. 빛나는 도전과 성취로 학교 구성원들에게 '희망'이자 '귀감'이 된 이들을 소개한다.

김태훈, 세계선수권 3연패 달성

첫 번째 주인공은 김태훈 선수다. 동아대학교 태권도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태훈 선수가 지난 6월 25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2017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54kg급 결승전에서 이란의 아르민 하디푸르 세이갈라니를 10대 6으로 꺾고 우승해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는 감점 10회를 받으면 반칙패가 되는데 결승전을 치르기 전까지 김태훈 선수는 한 번도 경기를 끝까지 치르지 않고 반칙승을 거둬 새로 바뀐 경기 규정에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로써 김태훈 선수는 2013 멕시코 푸에블라 대회, 2015 러시아 첼랴빈스크 대회에 이어 3연패를 달성하며 지난해 리우 올림픽 남자 58kg급에서 동메달에 그친 아쉬움도 털어냈다. 현재 김태훈 선수는 전성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대로의 기량이라면 최다 연패 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김태훈 선수는 지난해 리우 올림픽 남자 58kg급에서 동메달을 따 '동아대학교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2월 학부 졸업 후 동아대학교 대학원 태권도학과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실업팀 수원시청 소속 선수로 뛰고 있다.

도전! 사하라 마라톤 완주

뜻깊은 도전으로 자신의 이름과 동아의 이름을 알린 젊은 청년이 있다. 동아대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한 박태훈 동문으로 개인의 도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아프리카에 우물을 지어주는 특별한 도전에 성공해 교내는 물론 사회 및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월 30일부터 7일 간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하라 사막 250km를 달리는 마라톤 'SAHARA RACE 2017'에 참가해 아프리카 우물 짓기를 위한 후원금 마련에 나섰다. 기금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와디즈'를 통해 이뤄졌으며, 그의 도전을 응원하는 이들이 모여 후원금 100여만 원이 조성됐다. 박 동문은 이를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NGO)인 굿네이버스의 '굿위터 프로젝트'에 기부해 잠비아 음광고 지역의 식수 위생 지원사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박태훈 동문은 "마라톤에서 경험했던 극심한 순간, 기적처럼 가질 수 있었던 용기를 기억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늘 선한 마음으로 포부를 안고 무엇인가 도전하면 좋겠지만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그 순간을 상상하며 작은 것부터라도 도전하라"는 말을 전했다.



완주의 기쁨을 표현하는 박태훈(도시계획학과 졸) 동문



동아의 도전정신을 보여준 내운한(국제관광학과) 학생

### 고비사막 극한마라톤대회에 도전하다

국제관광학과에 재학 중인 내운한 학생도 고비사막마라톤대회 완주에 성공해 주목을 받은 자랑스러운 동아인이다. 고비사막마라톤대회는 바람이 휘몰아치는 모래 위, 척박한 평야와 호수 등 총 250km의 코스를 여섯 구간으로 나눠 7일간 달리는 세계 4대 극한마라톤대회 중 하나다. 참가자들은 의복과 식량 등 생존에 필요한 장비만 메고 제한 시간 내에 매일 43km를 달려야 한다. 이 극한의 마라톤 대회에 120명이 참가했고 이 중 내운한 학생이 76등으로 완주했다.

내운한 학생의 이번 도전은 스피크 쌓기가 아닌 청년의 순수한 도전 정신으로 이뤄졌다. 이번 대회 출전을 위해 군대 급여와 아르바이트로 600만 원을 모았으며 국내의 주요 하프마라톤, 풀 마라톤 등을 뛰며 대회 준비를 했다. 사막에서의 마라톤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었다. 열사병에 걸린 참가자들이 속출했고, 시원한 물 한 모금 구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마지막 코스였던 82km 구간은 52도가 육박한 무더운 환경에 밤을 새며 걸어야 했다. 광활한 사막에서 홀로 뛰다 보니 자신이 마치 지구의 작은 점이 된 듯했다고.

자신 하나가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대자연 속에서 그는 겸손함을 배웠다. “누구나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는데 평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채워가는 것이 더 값지다는 금쪽같은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 동아대 젊은 교수들의 성과

올해는 젊은 교수진들의 연구 활약이 더욱 돋보이는 해였다. 국내 학술지 및 게재 논문의 학술·인용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분석 결과 동아대학교 젊은 교수들의 성과가 주목을 받은 것이다.

동아일보가 최근 10년간(2007~2017년) KCI에 등재된 논문 101만1,526건 중 △경영학 △경제학 △교육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등 8개 분야별 총 피인용 수가 높은 연구자를 100명씩 분석한 결과, 30~49세의 젊은 연구자가 240명 꼽혔다고 지난 6월 28일 발표했다. 이 중 동아대학교 강동완(정치외교학 분야·부산하나센터), 김현정(정치외교학 분야·국제학과), 류은영(행정학 분야·행정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강동완 교수는 외교·안보·통일 논문 36편을 게재했고 218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정치경제 논문 57편을 게재한 김현정 교수는 94회 인용됐다. 류은영 교수는 행정조직·관리 분야 27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254회 인용됐다. 동아일보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총 피인용 수 상위권에 오른 3040 연구자 논문은 여러 학문을 융·복합했고 미개척 분야를 발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교수 평가에서 총 피인용 수까지 고려해야 3040 연구자를 많이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떨쳤던 김외숙 겸임교수의 법제처장 취임식

### 동아대학교 교수들 문화재위원 대거 위촉

동아대 교수들이 문화재위원으로 대거 위촉됐다. 문화재청이 지난 5월 문화재위원 78명과 문화재전문위원 177명을 발표했는데, 동아대 교수 5명이 제28대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세계유산 등 8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박은경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가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에 이름을 올렸고, 같은 학과 박광춘 교수는 매장문화재와 사적문화재 분과 위원에 선임됐다. 전문위원에는 최영호 교수(동산문화재분과), 김재현 교수(매장문화재분과), 김기수 건축학과 교수(근대문화재분과)가 위촉됐다.

### 김외숙 겸임교수 제32대 법제처장 취임

김외숙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제32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해 법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 지난 6월 12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신임 처장은 “차별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그러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법령과 행정규칙을 잘 정비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김 처장은 ‘노동·인권변호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당시 부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하며 인권·시국·노동사건 등을 주로 맡아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현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2007년부터 동아대학교 법전문 겸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왔다.



01 (주)동원개발  
장복만 회장 명예법학사 수여

동아대학교가 지난 3월 6일 승학캠퍼스 리인홀에서 부산 향토 최대 건설기업인 (주)동원개발 장복만 회장에게 명예법학사를 수여했다. 행사에는 한석정 동아대 총장,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 김재진 경동건설(주) 회장, 신정택 세운철강(주) 회장을 포함한 내빈과 과거 장복만 회장과 함께 강의를 수강했던 벗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장복만 회장은 부산에서 (주)동원개발을 창업해 40여 년 간 운영해오고 있는 기업가로 1967년 동아대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끝마치지 못했다. 그는 교육에 대한 남다른 신념으로 동원문화재단을 설립해 부산·경남 일원 260여 개교, 260여 명의 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며 꾸준히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교육을 위해 사회에 환원한 금액은 900여억 원에 달한다. 최근 1억 원 이상을 사회에 기부한 고액 기부자들이 가입하는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린 장복만 회장은 국가 유공자 노후 주택 무료 보수, BS금융의 지역아동센터 희망주택 집수리 사업 등에도 참여하며, 지역 사회 소외계층 돌보기에도 앞장 서고 있다.

이날 한석정 총장은 학위모와 학위증을 전달한 후 “넓은 마음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풀고 뛰어난 추진력으로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계시는 장복만 회장님은 우리 동아대가 지향하는 동아젠틀인과 많이 닮았다”며 “앞으로도 모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장복만 회장은 “동아대에 꿈을 가지고 입학 했지만 경제적 이유로 중도 하차해 많이 아쉬웠다”며 “낮은 자세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늘 나누는 모범생이 되겠다”고 전했다.



담소를 나누고 있는 한석정(右에서 2번째) 총장과 장복만 회장

02 국내 500대 기업 CEO 중  
동아대 출신 7명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47개 기업 CEO의 출신학교 이력을 분석한 결과, 동아대학교가 국내 500대 기업 CEO 7명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학교는 서울대(122명), 고려대(52명), 연세대(44명), 한양대(24명), 성균관대(17명), 한국외대(13명), 서강대(12명), 영남대(11명), 중앙대·인하대(각 10명), 부산대(8명)에 이어 경북대와 함께 CEO 출신 대학 공동 12위에 올랐다.

국내 500대 기업 CEO 중 동아대 동문은 △강병중(법학과 졸) 넥센타이어 회장 △박석목(무역학과 졸) 흥아해운 사장 △박연차(명예체육학박사) 태광실업 회장 △성상록(공업화학과, 현 화학공학과 졸)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이종숙(기계공학과 졸) 덕양산업 대표 등이 있다.



강병중 회장(법학과 졸)



동아대 스포츠 명예의 전당 개관식 및 명예의 전당

03 동아대학교  
스포츠 명예의 전당 개관

동아대학교가 지난 4월 28일 승학캠퍼스 예술체육대학 8층 리인홀과 7층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서 ‘스포츠 명예의 전당’ 개관식을 가졌다. 이로써 양정모, 하형주, 문대성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비롯한 많은 동문 스포츠인과 대학 스포츠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이 자리에는 한석정 동아대 총장, 정휘위 학교법인 동아학숙 이사장, 제종모 총동문회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최인호 국회의원, 박극제 서구청장, 안병길 부산일보사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동아대 출신 선수들이 만들어낸 한국 스포츠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추억했다. 특히 명예의 전당 주인공인 하형주(84 LA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동아대 예술체육대학장, 양정모(76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전 선수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04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보물 지정

동아대 석당박물관(관장 정은우)이 소장한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이 지난 3월 보물 제1929호로 지정됐다.

18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경상도 지역 진경산수화로 꼽히는 이 작품은 진제 김윤겸(1711~1775년)이 부산과 합천, 거창, 함양, 산청 등 영남지역의 명승지를 유람하고 그린 14장의 화첩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문화재청에 의해 보물로 지정 예고된 바 있으며 <물운대>, <영가대>, <홍류동>, <해인사>, <태종대>, <송대>, <가섭암>, <가섭동폭>, <월연>, <환아정>, <순암>, <사담>, <하룡유담>, <극락암>으로 구성돼 있다.

제작 시기는 김윤겸이 1770년 소촌 찰방(조선시대 경상도 진주의 소촌역을 중심으로 한 역도의 역참을 관리하는 종6품 외관직)에 임용된 당시로 추정되며, 과감한 생략이 가미된 단순한 표현과 열은 청색이 특징인 해맑은 선염(동양화에서 물을 칠하여 마르기 전 붓을 대어 몽롱하게 표현한 번짐 기법)으로 김윤겸의 독특한 화풍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는다.

김윤겸의 독특한 화풍이 엿보이는 영남기행화첩



갓옷 어깨장식

원수명 가죽투구

## 05 조선시대 문화재 시지정 유형문화재로

동아대 석당박물관 소장 원수명 가죽투구와 갓옷 어깨장식이 지난 5월 부산광역시지정 유형 문화재 제180호 지정됐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몇 점 남지 않은 조선시대 원수명 투구와 갓옷 부속구로 구조 및 의례용 기물 장식 등에서 그 당시의 투구 제작기법을 파악할 수 있어 큰 의의를 지닌다.

제작 시기는 18세기 말~19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원수명 가죽 투구의 이마가리개에는 '원수'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상당관의 관직을 지낸 사람이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보주와 삼지창으로 정수리를 장식하는 등 화려한 외관이 눈에 띈다. 특히 청룡, 백호, 주작, 현무로 이뤄진 사신문과 용봉문 등이 새겨져 있어 18세기 말을 전후한 당시의 투구 제작기법을 알 수 있다. 쇠로 만든 찰을 의복 안쪽에 못으로 촘촘히 고정한 갓옷인 두정갓에 부착했던 어깨장식 2점 또한 보관상태가 양호해 용머리 장식 등 세밀한 제작기법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석당박물관은 국보 2건, 보물 14건, 국가민속문화재 1건, 등록문화재 2건, 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24건 등을 소장하고 있다.



## 06 정재환 박사 석당서 발간

### 석당 정재환

동아대 설립자인 석당 정재환 선생은 1906년 12월 16일 경상남도 남해에서 출생해 일본 리츠메이칸대를 졸업했다. 1940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던 중 광복을 맞이했고, 검사장 신분으로 동아대를 설립했다. 그는 이후 전주지검 검사장, 대전지검 검사장, 대구지검 검사장 등을 거쳐 한국전쟁 중인 1952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고, 1953년 10월 동아대학장에 취임했다. 석당 선생은 동아대 총장을 지내면서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76년 11월 30일 영면했다.

동아대학교가 설립자인 석당 정재환 박사가 쓴 시와 어구, 사자성어, 편지, 명구 등 43점을 수록한 도록 '석당서(石堂書)'를 발간했다.

석당 선생은 법학자이면서 교육자, 역사학자, 문필가로서 해방 후 동아대를 설립하고, 법무부차관과 동아대 초대 총장, 박물관장을 역임했다. 그는 사서(四書)뿐만 아니라 당시(唐詩)부터 김소월로 대표되는 현대시까지 두루 섭렵해 이를 바탕으로 글을 썼다. 특히 '동좌문도(同坐問道 한자리에 앉아 이치를 묻다)', '장수망려(長壽忘慮 오래 살면서 근심을 잊다)' 등의 사자성어를 직접 짓기도 했다.

석당 선생의 유묵 중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써준 글들로, 설날 아침에 쓴 신년 축하 글이 많으며 지인에게 쓴 감사와 격려의 편지도 있다. 지난해 동아대 개교 70주년 기념 특별전에서 석당 선생의 유묵과 글이 소개되면서 관심을 모았고, 이에 동아대 석당박물관 교사자료실과 학교법인 동아학숙에서 소장하고 있는 글을 모아 도록을 펴낸 것이다.

한석정 동아대 총장은 "‘석당서’가 동아대의 설립 근본과 교육철학은 물론이고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인간 석당 선생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도록 발간 의미를 전했다.

한편, 동아대 석당박물관은 지난 2010년부터 소장품을 소개하는 도록을 발간하고 있다. 2010년 국보·보물을 시작으로 2011년 도자기, 2012년 불교미술, 2014년 산수화·화조화, 2016년 기록화·인물화에 이어 이번 도록은 여섯 번째다.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07 동아대학교 로스쿨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0명 배출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60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동아대 로스쿨은 개원 이래 총 305명의 법조인을 배출하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6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110명 중 합격자는 1,600명으로 51.4%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번 시험에서 법학사 출신은 1,699명이 응시해 869명이 합격했고, 비(非)법학사 출신은 1,411명이 응시해 731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근 동아대 로스쿨 원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변호사시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대 로스쿨은 국제상거래 분야를 특성화해 로스쿨 본연의 기능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법률가 양성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최초로 로스쿨 출신 부녀 변호사가 탄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3년 동아대 로스쿨 제5기로 입학해 이번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혜라(27) 씨가 그 주인공으로, 김 변호사의 아버지는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지평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권(54) 변호사다.

### 08 중등임용고시 합격자 25명 배출

동아대학교가 2017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중등임용고시)에서 25명의 최종합격자를 냈다.

지역별로는 부산 8명, 경남 8명, 충남 3명, 울산 2명, 서울·인천·세종·제주 각 1명이 합격했다. 과목별로는 보건의 6명으로 가장 많고, 미술 4명, 체육 2명, 음악 2명, 기계·금속 2명 등이다.

2017년 중등임용고시는 1차 필기시험(2016년 12월 3일)과 2차 실기 및 면접평가(2017년 1월 11~18일)로 합격자를 선발했으며, 전국적으로 5,989명을 뽑는 가운데 총 5만 3,770명이 지원하면서 1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남 지역 국어교사에 최종합격한 서현주(교육학과 16졸) 동문은 “교사라는 꿈을 갖고 동아대에 입학해 약 5년 동안 공부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하며 “학과 수업을 들으며 생각했던 다짐들을 잊지 않고 점점 발전해나가는 교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대학교에는 교육학과를 비롯해 29개 학부에 교직과정(교직과정)이 설치돼 있고, 교육대학원에 13개의 교직과정이 설치돼 있다.



한석정 동아대 총장의 저서 『만주 모던 :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문학과지성사)이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만주 연구 권위자인 한석정 총장이 집필한 『만주 모던』은 문학과지성사의 ‘현대의 지성’ 163번째 시리즈로서, 만주를 매개로 1960년대 한국 사회를 읽는 또 하나의 독법을 제시했다.

1930년대 일제가 세운 만주가 훗날 한국 사회 근대화에 전한 흐름을 필자는 ‘만주 모던’이라 명명했다.

출간 당시에도 이 책은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 방식과 이후 한국사회 변화를 1930년대 만주 체제와 연결 지어 해석했다는 점이 기존의 식민지근대화론과 비교해 차별화된 접근법이라는 평을 받았다. 간행물 및 신문기사와 연구자료, 인터뷰 등을 토대로 썼기에 식민시대와 만주라는 소재로 만들어낸 흥미진진한 논픽션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석정 총장은 “이 책을 구상하고 출간하기까지 10여 년이 걸렸다. 친일 대 민족적 저항이라는 단순 이분법을 넘어 탈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객관적 평가를 시도하려고 했다”고 의미를 전했다.

한편, 한석정 총장은 지난 5월 KNN ‘행복한 책읽기’에 출연해 요즘 애독하고 있는 책과 평소 독서에 관한 생각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만주 모던』 저자 한석정 동아대 총장

### 09 한석정 총장 저서 만주 모던 우수학술도서 선정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학자를 지원하고 학술연구 및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학술교류 등을 통해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54년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지난 2002년부터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인문학 79종 △사회과학 95종 △한국학 40종 △자연과학 73종 등 총 287권을 선정했다.



과학기술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로 표창을 받고있는 이무연 교수(右)

### 10 이무연 교수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이무연 기계공학과 교수가 지난 4월 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7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산학연 과제 및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해 김치냉장고 및 자동차용 공기조화 시스템 연구개발, 온라인 전기버스 상용화, 자성유체 스피커 개발에 기여하는 등 과학기술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 진흥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것. 이 교수는 2013년 학술상인 대한기계학회 젊은열공학자상을 시작으로 2015년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표창,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중소기업청장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SCI급 논문 37편 등 총 86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기계공학분야 저널 Applied Thermal Engineering(ATE, JCR 상위 5% 이내, I.F 3.043) 등 기계공학 분야 유명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며 연구 성과를 쌓아왔다.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기술개발 사업으로 국가 과학기술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것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 과학기술 진흥 활동에 더욱 매진 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동아대는 물론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11 강원호 교수 부산토목대상 수상

강원호 토목공학과 교수가 지난 5월 20일 열린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창립 49주년 기념식'에서 29년간 인재육성과 산·학·관 협력 및 토목공학에 대한 연구수행 공로를 인정받아 제6회 부산토목대상 학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소감에서 강 교수는 "부울경 지역은 재난을 방지하고 오래 쓸 수 있는 토목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토목구조물을 만드는 데 학문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토와 도시 개발에서 토목 분야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좋은 연구로 수상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토목대상은 부산시와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가 지난 2012년 제정한 것으로, 학교·연구소·건설산업체·공무원 등 국가와 지자체의 주요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000여 명 중에서 △학계 △업계 △건설행정 △공직 부문 수상자를 가린다.

토목공학 연구에 기여한 강원호 교수(좌에서 세 번째)



### 12 지역예술을 이끄는 동아대학교 교수들



이명진, 양경아, 진소영 교수

동아대학교 이명진 음악학과 교수, 양경아 전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예술매니지먼트학과 교수, 진소영 음악학과 교수가 지난 1월 14일 부산예술회관에서 열린 '부산음악협회 정기총회'에서 제42회 부산음악상을 수상했다. 이명진 교수는 서울예술고등학교와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학교를 수석졸업하고 슈투트가르트 국립학교에서 동양인 최초로 교수 나탈리아 구트만에게 사사받아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2006년부터 동아대 교수로 임용돼 매년 1회 이상 부산에서 독주회를 갖는 등 최고의 첼리스트로 인정받아 왔다. 양경아 전 교수는 서울예고를 졸업해 뉴욕 맨하탄 음대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은 음악인으로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KNN 방송오케스트라 악장 및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부산 지역의 예술 문화를 이끌고 있으며, 뉴욕 카네기홀 데뷔 독주회를 포함해 스위스 UBS Verbier Music Festival, 한국-체코 수교25주년 평화콘서트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주한 바 있다. 진소영 교수는 독일 뷔르츠 부룩 국립음악대학(Hochschule für Musik Würzburg)에서 학사 Vordiplom, 전문연주자과정인 Dipolom와 Meister Diplom을 취득했다. 부산작곡가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독일 Kassel 오케스트라 콩쿠르, Armin-Knab 콩쿠르, 부산 창작 관현악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작품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부산음악상은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 예술문화 부흥에 기여한 음악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동아대학교 교수들이 수상자 8명 중 3명이나 수상해 의미를 더했다.

동아대학교 도서관 정상만(학술정보서비스2과) 전 팀장이 지난 2월 23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도서관협회 제68차 정기총회에서 '제49회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했다. 한국도서관상은 한국도서관협회가 해마다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국내 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정상만 팀장은 승학캠퍼스 도서관에서 34년간 근무하면서 지역 내 산학협동 기반을 구축해 도서관 보유 학술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지역 고등학교 도서관 기반 조성을 위한 전자시스템 도입과 서지 DB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다양한 대외활동으로 대학과 지역 도서관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용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등 각종 학술정보 서비스업무 개선과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13 정상만 도서관 팀장 한국도서관상 수상





스승과 어린 소년이 티베트로 떠나는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양뚜' (자료출처 : 옛나잇필름)

### 14 문창용 감독 베를린영화제 그랑프리상

동아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문창용 감독이 다큐멘터리 <양뚜>로 '제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그랑프리상을 수상했다.

<양뚜>는 인도 라다크의 사원에서 버림받은 린포체가 자신을 돌봐준 스승과 함께 전생에 머물던 사원을 찾아 티베트로 떠나는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베를린영화제의 제너레이션 Kplus 섹션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심사위원단은 영화 <양뚜>에 대해 "부모와 아이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 그들의 여정을 통해 달콤하고도 씩씩하게 경험할 수 있다"며 "관객들을 웃고 울게 하는 이 영화는 인간성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이야기 속 어린 영웅의 가치가 관람객들에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를 줄 것이며 이로써 세상은 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감독은 "국가와 정치, 종교, 문화는 다르지만 시련을 극복하려는 어린 소년과 스승의 간절한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된다"며 "함께 웃고 울어주며 양뚜를 사랑해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양뚜>는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앞서 2014 프랑스 Sunny Side of The Doc 센틀 피칭과 암스테르담 IDFA 코리아피칭데이에서 상영되며 전 세계 영화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DMZ국제다큐영화제 아름다운 기러기상 수상,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문에 공식 초청되는 등 국내 영화계에서도 큰 호응을 받았으며 2017년 하반기에 국내 개봉 예정이다.



세계 영화인들의 주목을 받는 문창용 감독

### 15 동아대 - 한국해양대 - 고신대 업무 협약



동아대학교 한석정 총장, 한국해양대학교 박한일 총장, 고신대학교 전광식 총장은 지난 3월 22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대 대학본부 국제회의실에서 만나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산 원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세 대학은 앞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상생을 약속했다.

이들 대학은 공학 분야 교육 프로그램, 조선해양 연구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국제비즈니스, 학생·교직원 복지, 도서관 자료 공유 등에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인근 대학들의 유사 특성화로 인한 소모적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특히 현재 부산시에서 논의하고 있는 원도심 4개(중·서·동·영도) 구 통합과 연계, 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 16 동아대 - 부산외대 인문역량 강화사업 공동 운영

동아대 한석정 총장과 부산외대 정해린 총장 등 양 대학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1일 부산외대 본관 회의실에서 '대학 간 연계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아대와 부산외대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과 자기설계 연계전공 교과목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설 및 자원 공유, 학점 교류, 취업 프로그램 및 국제화 업무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동아대와 부산외대는 지난 2016년 나란히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됐다. 두 대학은 기획처를 중심으로 협력 분야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한 후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자기설계 연계전공 교과목 교류, 인문역량 강화사업 프로그램, 시설물, 도서관 및 학술자료 공유 등 실질적인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17 동아대·부산교대 등 7개 대학 - 부산일보사 교육공동체 조성 협약

동아대와 부산교대, 경성대, 동의대, 신라대, 영산대, 한국해양대와 부산일보는 지난 4월 13일 부산일보사에서 '부산지역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각 대학은 권역별로 학력 신장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인 희망사다리교육, 진로·인성 교육 지원 사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부산일보는 이에 대한 사회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각 대학의 권역은 △동아대와 신라대는 서·사하·사상·북·강서구 △부산교대는 연제·동래구 △경성대는 남·수영구와 기장군 △동의대는 부산진·서·사하·사상·북·강서구 △영산대는 금정·해운대구 △한국해양대는 영도·중구이며 이들 대학은 지자체의 교육사업예산 등을 각각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나의 롯데  
나의 동아대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 신본기 동문(경기지도학과 08학번)

적은 연봉에도 기부를 아끼지 않는 선수, 직접 몸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선수, 자신의 재능도 아낌없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선수, 끊임없는 노력으로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선수,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선수, 뭐든지 잘 했으면 하는 선수. 신본기 동문을 표현하는 수식어들은 한결같이 그의 사람됨을 가리키고 있다. 그 착한 마음씨와 노력의 본보기, 신본기 동문을 롯데 '가을야구'의 예감이 물씬 드는 가을 초입, 부산 사직구장에서 만났다.



롯데, 그리고 야구

신본기 동문은 초등학교 때 처음 아버지를 따라 야구장에 갔을 때 야구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계절은 가을로 기억하는데요, 드넓은 초록의 마운드, 마운드 위에 푸른 하늘, 위풍당당해 보이는 롯데선수들. 당시에 선수들이 멋져 보였고 나도 언젠가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롯데 유니폼을 저도 꼭 입을 것이라고 다짐했고 롯데 입단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구는 생활이 되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골목에서, 던지고 치고 달리고 넘어지고 이기고 때론 지기도 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야구로 보냈다고. “당시에 맘을 흘리며 야구를 함께 했던 친구들은 제게 소중한 인연으로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소중해서일까. 몇 년 전부터 모교인 감천초 후배들을 경기에 초청해 내야 수비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보람차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는 왜 야구를 좋아하는 걸까. 이 질문에 “그야말로 야구장의 분위기가 좋아서입니다. 공을 던지고, 치고 활발히 움직이는 야구 선수들. 야구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과 함성, 응원가, 전광판의 굵직한 숫자 등 야구경기를 할 때 모든 것들이 저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예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아할 겁니다”라는 명쾌한 현답을 한다.

신본기 선수 프로필

- ▲ 생년월일 1989년 3월 21일
- ▲ 신장 : 178cm, 몸무게 : 82kg
- ▲ 출신교 : 감천초 - 경남중 - 경남고 - 동아대
- ▲ 포지션 : 내야수(등번호 7번)

나의 동아대, 그리고 기부

그런 그에게도 슬럼프는 있었다. 고등학교 때 야구를 관둘까 생각을 했던 것.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았고 그게 반복이 되니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그때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진심어린 조언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슬럼프를 겪고 난 이후로, 어떤 형태로든지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애썼고 자연스럽게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

동아대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특별한 애착을 가지게 된 이유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보통 고3이 되면 대학을 가야하나, 프로로 가야하나 고민을 합니다. 근데 당시 전 프로는커녕 어떤 대학에서도 오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야구를 할 수 있을까, 취업전선에 나가야 하는 건 아닌가..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딱 절망적이었어요. 그 때 동아대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시의 기쁨은 이뉘 말할 수가 없었고, 그런 그에게 동아대는 소중한 모교라며 그때가 생각이 났는지 미소를 띠며 말한다.



신본기에게 동아대란?

오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에 그의 특별한 인생 2막이 시작된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여자친구와 5년간의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하는 것.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제게는 크리스마스보다 이브가 설레고 뭔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자친구와 함께하고 싶었기에 이브로 정했습니다.” 그전에 기필코 올해 롯데의 우승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에게 “동아대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은인입니다. 제가 지금 야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동아대라는 꿈의 마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미래가 걱정이 되거나 야구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동아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동아대와 관련된 일이라면 앞으로도 마음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늦깎이 법학도, 사랑을 품다

김미애 변호사(법학과 97학번)

“ 변호사법 1조 1항이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옹호입니다. 그 사명을 늘 마음에 품는다면 길은 열릴 것입니다. ”

### 꿈을 열어준 동아대학교

김미애 동문은 17세 때 생계를 위해 고향을 등지고 부산으로 터를 옮겼다. 어린 나이지만 25세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지내던 중 문득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의문과 동시에 “이렇게 돈만 벌며 살아야 하나”라는 회의가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하며 겪었던 소외계층의 인권과 사회 부조리를 고민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동아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그의 나이 29세 때였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했다. 혈혈단신에 식당을 정리하고 남은 돈 3,000만 원. 그 안에서 목적을 이뤄야 했다. 자연스레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여태껏 노동의 대가로서의 돈만 알아왔던 그에게 장학금은 마냥 신기한 존재였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고 또 그렇게 했다. 장학금은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즐거움 동기이자 도움이었다. 김미애 변호사는 동아대학교를 “자신에게 꿈을 열어준 곳”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애착심으로 강의실과 도서관 옥상을 스스로 청소하기도 했다. 그렇게 늦깎이 법학도는 35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다.

###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다

현재 김미애 동문은 법무법인 한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울은 아동 청소년 및 여성 인권 지원을 비롯해 가사, 이혼, 손해배상, 보험, 형사, 개인회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변호사 로펌이다. ‘벧속의 불평등이 사회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철학이기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아동의 인권이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주된 관심이다. 그래서 입양한 딸과 혼자된 조카와 동행하고 있으며 세계 수십 명 빈곤아동들에게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더불어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소명이라 여기고 그에 관련해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노동자인권 포럼에서 강연을 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변호사법 1조 1항이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옹호입니다. 그 사명을 늘 마음에 품는다면 길은 열릴 것입니다.” 김미애 변호사가 법조인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조언이다.

### 수석입학, 수석졸업

하은정 동문의 첫 번째 도전은 변호사를 목표로 법대에 입학하는 것이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이유는 바로 부와 명예 때문이었는데, 세속적인 부귀공명은 아니었다. “인간이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경제적 독립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변호사란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지위가 동시에 가능한 직업입니다.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직업이 법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수석으로 동아대 법학과에 입학한다. 수석입학자가 4년 전액장학금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의 학점을 계속 받아야 했고 꾸준히 공부를 해야 했다. 그렇다고 그게 수석졸업의 이유는 아니었다고. “배우 윤여정 씨가 ‘연기자가 가장 연기를 잘 할 때는 돈이 가장 급할 때’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수석졸업은 학업에의 열의와 신념과는 무관한 경제적 압박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솔직할 수 있을까. 그 후 1998년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2001년부터 부산의 한 로펌에서 8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된다.

### 성취와 보람이 곧 행복

처음엔 부와 명예를 위해 변호사가 됐지만 그는 사실 성취와 보람에 더 높은 가치를 둔 변호사였다. 동료들조차도 가망 없다고 한 사건도 의뢰인을 끝까지 설득해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건들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법적 분쟁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의뢰인이 저의 노력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종류와 규모를 불문하고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법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일었고 워싱턴대학 로스쿨에서 유학, 2012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의 도전을 위해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법조인이 희망인 후배들에게 하은정 동문이 전하는 말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책, 특히 경제와 역사 분야의 검증된 책을 많이 읽기를 권합니다. 거짓과 진실을 변별할 지력을 갖추지 못한 법조인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 한계를 넘어선 넓은 세상으로의 도전!

하은정 변호사(법학과 90학번)

“ 거짓과 진실을 변별할 지력을 갖추지 못한 법조인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아 재능기부봉사단에 참여하는 각 동아리 회장들

# 동아 재능기부봉사단을 아시나요?

‘농활’(농촌활동), ‘빈활’(빈민활동) 정도였던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개념이 다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맘을 통해 보람을 느꼈던 봉사가 전형적 형태였다면, 현재는 전공을 살려 지식과 재능을 기부하는 유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동아대학교는 동아 재능기부봉사단(이하 \_ 봉사단)을 조직, 지난 2012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올해 초 발대식을 가진 봉사단 4기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역사회에 싹 틔우는 문화 예술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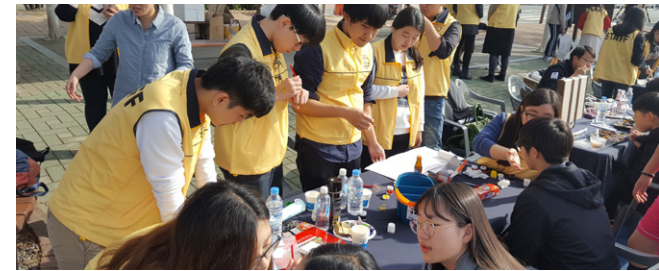
봉사단의 재능기부 활동은 주로 지자체들의 요청으로 이뤄진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학교는 관련 동아리 학생대표들에게 공지 후 기부 가능한 동아리를 선발해 단체와 매칭을 하는 식이다. 봉사단은 크게 공연, 전시, 체험, 교육 등 4개의 분야로 나뉘는데 음악, 댄스, 체육, 치어리딩, 풍물, 만화, 사진 등 다양한 분야(15개 동아리, 총 232명)로 구성됐으며 지난 4월부터 각 지자체에 재능을 기부해 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수영구청이 주관하는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에 초청받아 지역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술, 댄스, 통기타 공연과 사진·그림 전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그리기, 만들기 등 문화예술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앞서 밴드 동아리 ‘두리’, 풍물패 ‘이음맥’은 지난 5월과 6월 삼락생태공원과 송도해수욕장에서 각각 펼쳐진 지역 행사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부산 원도심사회적기업 장터한마당’에서 서부산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 공연을 선사했다. 또 ‘동아자동차연구회’는 교내에서 자동차 기본 점검교육 및 장비 교육을 ‘스포츠아이’는 고등학교를 방문해 진로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아검도회’와 미식축구동아리 ‘레오파즈’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체험 및 교육활동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등 지역 사회 곳곳에 동아만의 문화 예술, 그리고 교육의 싹을 틔우고 있다.

## 재능과 열정의 창작문화

공연 전시 동아리들은 자체적으로 창작을 하기도 한다. 응원단은 직접 치어리딩 안무를 짜고, 만화 동아리 ‘인터카툰’은 본인들의 개성으로 작업한 그림을 전시한다. 밴드 ‘코마’는 자작곡을 선보이고, 흑인음악을 하는 ‘리드머’는 직접 랩을 작사하고 곡을 붙이기도 하는 등 학생들 개개인의 창의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그런 만큼 이들이 선보이는 재능기부는 신선하고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지난 광안리 공연 때 응원단의 무대를 본 한 시민은 “대학생 특유의 젊음 에너지가 넘친다”며 “간만에 소리 지르며 스트레스를 날렸다”고 좋아했다. 재능기부 활동은 봉사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댄스동아리 ‘가리온’ 유동환 회장은 “봉사단을 하기 전에는 공부와 취업 스트레스로 지치는 날들이 많았다.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생활의 활기를 찾아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며 봉사단은 본인에게 ‘열정’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방학 중인데도 하반기 공연프로그램 간담회에 회장단이 다수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어린이들에게 바디페인팅을 하는 봉사단

## 지역사회에 ‘동아문화’를 각인하다

대학가에서 취미나 학술 동아리는 신입부원이 없어 존속이 위태로운 반면 취업 관련 동아리에는 학생들이 넘쳐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취업난 때문이지만, 취업 관련 동아리에만 학생들이 몰리는 건 다양한 소양을 쌓아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풍조다. 이런 분위기에서 동아대학교는 봉사단의 활동을 지원,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인성함양은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통비, 식대 및 다과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활동 물품도 지원해주고 있어 학생들이 든든하게 봉사단에 임하고 있다.

김동규(기계공학과 4, 동아리연합회장) 학생 단장을 비롯한 봉사단원들은 “우리가 가진 끼와 재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사단은 지난해 11월에는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에서의 공연과 전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아 수영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 ‘같이’의 가치, 함께 스마일!

교내 환경미화원들과 2017 총학생회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손길에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언제나 안 보이는 곳에서  
좋은 학교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먼저 밝게 웃어주시는  
어머님 아버님의 미소로  
학생들이 힘을 얻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손길에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먼저 밝게 웃어주시는 어머님 아버님의 미소로  
학생들이 힘을 얻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에 달릴 법한 이 글귀들(좌)은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최근 교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캠퍼스 건물 곳곳에 부착한 스티커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다. 이는 2017 총학생회 ‘같이의 가치’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이벤트로 승학, 부민, 구덕캠퍼스에 문구 200여 개가 부착됐다.

이들은 2015·2016년에 이어 지난 어버이날을 기념해 우산과 수건 200개를 환경미화원 70여 명에게 전달했으며, 근무만족도 조사지를 배부하는 등 환경미화원들을 살피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아대 근무 13년 차가 된 환경미화원 김명옥(56)씨는 “내 아들, 딸들이 청결한 곳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늘 청소에 임한다”며 “고될 때는 있어도 활기차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행복하고, 먼저 살갑게 인사해주고 무거운 짐을 선뜻 들어주는 학생들이 있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다른 환경미화원들도 “진짜 몽클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노고를 알아주니 기쁘다”, “기특한 생각을 했다”며 생각지도 못한 학생들의 마음 씩씩이에 놀라움과 고마움을 밝혔다. 최근 환경미화원들과의 만남으로 그들의 고충을 알게 된 총학생회 집행부는 “학생들이 무심코 하는 사소한 생활습관들을 조금만 신경 써서 고쳐준다면 어머니, 아버님들이 덜 힘드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 외에도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롤링페이퍼 전달 등이 단과대별로 진행되기도 했다.

### 오렌지로 전하는 마음

지난 5월 16일,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경영대학에서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자랑스러운 다우리스트(DAUist, 경영대학 인재상)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취지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오렌지 3,200여 개를 나눠주며 격려를 전한 것이다. 동아대 경영대학은 자기주도적으로 지적 역량을 강화하는 ‘다우이즈(DAUism)’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과정 및 전공수업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소속감과 애착을 높이기 위해 매년 스승의 날 다음날을 ‘The DAUist Day’로 지정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이벤트는 평소 교수들이 항상 학생들을 위해 뭔가 해주려고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로, 학생들에게 힘내라는 뜻에서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오렌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구입한 오렌지 3,200여 개

를 구입했기에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토크버스킹도 펼쳐졌다. 학생들은 대학생활에 대한 조언, 전공공부, 학과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교수들 또한 경영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잘 따라와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버스킹을 들은 청중들이 1천 원씩 모은 금액은 학생회 이름으로 경영대에 기부됐다.



후배들을 아끼는 선배의 마음을 보여준 조홍래 동문(좌에서 3번째)

최근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동현재 앞에 현판이 새로 생겼다. 현판에는 ‘모교와 후배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뜻을 여기에 아로 새깁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공인회계사(CPA)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공간인 ‘동현재’가 경영대 선배와 교수들의 사랑으로 탈바꿈했다. 부민캠퍼스 경영대 건물 15층에 위치한 동현재는 60여 명의 학생이 공인회계

### 동현재에 피어난 후배사랑

사 합격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곳으로 시설이 낙후돼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 사실을 접한 조홍래(1976 경영학 졸업) (주)삼흥기업 대표가 2천만 원을 쾌척했고, 경영대는 운영 경비 1천여만 원을 함께 투입해 오래된 의자와 책상 등을 교체했다. 그 마음을 기념하고자 지난 2월 27일 동현재 앞에서 현판식이 열렸다. 동현재 학생 50여 명과 조홍래 삼흥기업 대표이사, 최형림 경영대학장, 설립부터 지도까지 동현재를 이끈 이윤원 명예교수, 정재현 지도교수, 김현수 경영정보학과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조 대표와 이 명예교수는 학생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조 대표는 “열심히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후배들에게 좋은 환경을 선사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고 전했다.

### 벽화에 담긴 따뜻한 사랑



벽화작업 중인 예술체육대학 학생들

동아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재학생 14명이 지난 3월 부산 용호동 백운초등학교에 벽화를 그려주는 재능기부를 했다. 동아대생들은 정문에서부터 건물에 이르는 벽면에는 사계절과 동물들을, 학교 앞마당에는 사방치기, 땅따먹기 등 전통놀이 판을 그렸다. 벽화가 완성되자 아이들은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고 교사들은 SNS에 올리기도 했다. 아이들은 특히 앞마당에 그려진 전통놀이 판에 많은 호기심을 보이며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놀이방법을 배우고 즐기기도 했다.

변옥남 백운초 교장은 “선뜻 벽화를 그려준 동아대 학생들에게 고맙다”며 “아름다운 벽화 덕분에 백운 교육가족 모두가 더욱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초 4학년 권하린 학생은 “학교 오는 길이 예쁘게 바뀌어 신나고, 친구들과 땅따먹기 놀이를 할 수 있어 무척 즐겁다”고 말했다. 미술학과 3학년 신해지(미술학과 부학생회장) 학생은 “처음에는 벽에 이끼가 많아 걱정스러웠고 학생들이 어떤 그림을 좋아할지 몰라 고민했는데, 완성된 그림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좋아해서 다행이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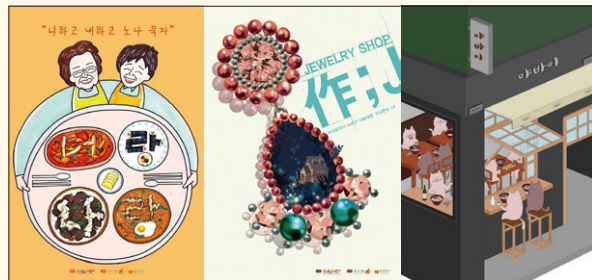
### 지역 상인들과 협업으로 소통하다

지역가게 홍보 포스터 전시회 ‘손길을 잡다’가 동아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미디어전공 3학년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지난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하단 위드카페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전공수업의 일환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은 직접 레스토랑, 페인트가게, 병원, 액세서리 숍 등 대학 주변 가게를 방문해 20개의 상점을 섭외, 선정했다. 그 후 상점 주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며 가게 특색이 반영된 포스터 작업을 시작했다. 1차원 상업적인 포스터보다는 예술적 감각이 들어간 PR포스터 완성에 주안점을 둔 결과, 가게 내부 부착 시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이고 상점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는 평을 이끌어냈다. 완성된 이미지는 인쇄물과 SNS·블로그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파일 형태로 무상 제공됐다.

학생들은 전시회 개막 첫날 가게 주인들을 초청해 작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상점 주인들은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시도했다는 점을, 지도교수인 김재홍 교수는 소통하기 어려웠던 대학생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포스터를 제작하며 가까워졌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지역 가게 홍보 포스터



### 이태석 봉사상 수상

동아대학교 출신 이호열 신부가 지난 1월 11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6회 이태석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호열 신부는 몽골 현지 울란바토르와 다르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복지 활동을 15년 넘게 꾸준히 펼친 것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동아대학교를 졸업한 이 신부는 신학교에 입학, 청소년 교육을 위해 살레시오회 수도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이후 2001년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겨울 속에 난방파이프가 지나가는 맨홀 안에서 지내는 길거리 아이들을 보고 암갈랑 지역에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것을 계기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농사 등 지역에 알맞은 공동체 수익활동으로 장학금을 지급했고, 한국의 동화책을 번역하고 전달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다. 또한, 인성 교육을 위한 잡지 ‘십대들의 쪽지’를 제작해 현지 청소년들의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전하는 이호열 신부(가운데)

한편 이태석 봉사상은 살아생전 아프리카에서의 선행으로 잘 알려진 고 이태석 신부를 기리며 제정된 상으로 세계 각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교육, 복지, 환경 등의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있는 진정한 봉사자에게 수여된다.

동아대 간호학과 출신 이성훈(33) 동문이 백혈병 환자에게 골수를 이식해줘 주위에 훈훈한 미담을 전했다. 지난 2013년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동아대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이성훈 동문은 2015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부산 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헌혈을 해 헌혈 유공자 금장을 받기도 한 그는 10년 전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을 했었는데 지난 5월에 자신과 유전인자가 일치하는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것이다.

이성훈 동문은 “동아대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시절 환자들을 보며 이식의 중요성을 느꼈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골수이식을 결심했다”며 “작은 일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동아인으로서는 긍지를 갖고 있다. 후배들이 간호사뿐만 아니라 구급대원으로서의 진로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 백혈병 환자에 골수이식

골수기증을 통해 훈훈한 미담을 전한 이성훈 동문





소중한 손길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마음,  
동아의 기쁨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손길이 동아를 크게 키웠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되어 곳곳에 스며든 당신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영대학원 동기들의  
모교사랑**

“대한민국이 살려면  
지역 대학이 살아야 하고, 지역이 살려면  
70여 년 역사의 동아대학교가 살아야 한다”

동아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AMP) 48기 동기인 전선용 (주)진영이노베이션 회장과 유삼용 한도종합건설(주) 대표가 지난 3월 20일 총장실을 방문해 각각 발전기금 1억 원과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전 회장과 유 대표가 기부한 발전기금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지난 2014년 5월에도 동아대에 1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는 전 회장은 “기부를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다. 주위에 알려져 많은 기업인이 동참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전 회장과 AMP 동기인 유삼용 한도종합건설(주) 대표는 “평소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전선용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같이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석정 총장은 “동아대학교와 인연을 이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이 살려면 지역 대학이 살아야 하고, 지역이 살려면 70여 년 역사의 동아대학교가 살아야 한다”며 “동아대학교에서 맺은 인연들이 이렇게 끈끈한 기질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후 회복했다는 전 회장은 “사고가 나서 아파보니 이웃에 베풀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들었다”며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기부에 꾸준히 관심 있었고 앞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할 꿈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주)내자인,  
발전기금 5천만 원 쾌척**

“앞으로 사업을 열심히 잘 해서 좀 더 많은 학생에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오상돈 (주)내자인대표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기업인이 가져야할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전기금 기부 취지를 밝혔다. (주)내자인에서 약정한 발전기금은 연 1천만 원씩 5년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발전기금 전달식에 앞서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주)내자인 오 대표와 김현숙 이사, 동아대 황규홍 대외협력처장 등 내빈들과 장학생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10명의 학생이 각각 장학금 100만 원을 받았다. 오 대표는 “부산에 매장을 내며 지역 사회에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동아대학교와 인연을 맺었다”며 “앞으로 사업을 열심히 잘 해서 좀 더 많은 학생에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요즘 이순신 정신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사랑, 정성, 정의, 자력’이 본질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아대 경영대학원 MBA 동문회, 발전기금 2천만 원 기부**

“화합과 소통의 동문회 운영을 다짐하며 발전기금 기부”

동아대 경영대학원 석사(MBA)동문회가 학교 측에 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전달식은 지난 3월 10일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제20회 정기총회 및 2017학년도 회장 이·취임식’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영한 전 부총장과 이충섭 전 경영대학원장, 제종모 총동문회장, MBA 석사동문회 역대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로·감사패 전달, 축사 등이 이어졌다. 김영구(MBA 38기) 제21대 신임 회장은 하

태권 전 회장으로부터 회기를 전달받음으로써 공식적인 취임을 알렸다. 김 회장은 “15년 전 기업을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동아대 MBA로 많이 채웠고, 4천여 명의 동문인적 네트워크는 정보교류와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며 “동문 여러분의 지혜와 해안을 적극 반영해 화합과 소통으로 동문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석사동문회는 축하 화환 대신 기증 받은 쌀화환 1톤을 사회복지법인 ‘든솔’에 기증했다.



**김태훈 리우 올림픽 메달리스트, 2천만 원 쾌척**

“모교에서 받은 많은 지원과 사랑이 후배를 위한 발전기금으로 이어져”

2016 리우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김태훈 태권도 선수가 지난 3월 17일 승학캠퍼스 본부 3층 총장실을 방문, 한석정 총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모교를 위해 2천만 원을 전달했다. 태권도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태훈 선수는 현재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진학해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김태훈 선수는 “모교에서 받은 많은 지원과 사랑이 후배를 위한 발전기금으로 이어졌다”며 “한 총장님과 지도 교수님 등 많은 분들의 진실한

응원이 경기 때마다 전해졌다”고 감사를 전했다. 2013년 동아대 태권도학과에 입학한 김태훈 선수는 같은 해 한국국가대표 선수선발 최종대회 남자 54kg급에서 1위를 차지해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 또한 그는 2013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4 아시아태권도선수대회, 2015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2016 리우 올림픽에서 패배를 딛고 값진 동메달을 땀다.



**조흥래 (주)삼흥기업 대표 경영대 발전기금 1천만 원**

1976년 우리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조흥래 (주)삼흥기업 대표가 지난 6월 12일 오전 11시 부민캠퍼스 경영대학장실을 방문해 경영대의 향후 비전과 청사진을 듣고 교육과 정 혁신을 위한 발전기금 500만 원, 미래 창의적 인재 발굴을 위한 500만 원을 쾌척했다. 조 회장은 “시대에 맞는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고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약소하지만 꾸준한 기부로 경영대 및 모교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형림 학장은 “경영대가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장님이 전달하신 희망이 후배들의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1억 5천만 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모교에 꾸준히 기부해오고 있다.



**(주)GMK 커뮤니케이션 이동수 대표, 1천만 원 기부**

(주)GMK커뮤니케이션 이동수 대표가 지난 4월 8일 오전 동아대 총장실을 방문해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학교 금속공학과(현 신소재공학과) 87학번인 이 대표는 1993년 금속공학과 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하다. 이동수 대표는 졸업 후 금속 업체에서 일하다가 90년대

후반부터 출판 및 디자인 인쇄물 분야를 업으로 삼았고, 동아대학교 관련 홍보물을 다수 제작하며 모교와의 인연을 이어왔다. 현재 동아 비즈니스 포럼 사무국장이기도 그는 본인의 분야를 살려 포럼 회원수첩을 제작해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일조했다.



**평생교육원 골프CEO 제23기 일동 발전기금 기부**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제23기 골프CEO아카데미 과정 수료식이 지난 6월 29일 임상택 평생교육원장을 비롯한 골프CEO아카데미 동문회 및 재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민캠퍼스 김관음행홀에서 치러졌다. 임상택 원장은 “우리 대학 골프CEO

아카데미는 단일과정 최대의 동문회가 구성돼 있다”며 “수료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골프로 화합과 우의를 다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제23기 일동은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허훈 (주)대웅축산 대표와 조희구 (주)세진유통 대표는 공로패를 받았다.





##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의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 가입방법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에 우편 또는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위에 후원의 집을 희망하는 업체를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로 추천해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 가입 시 혜택

-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후원금에 대하여 세금감면용 기부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 감사 난 발송
- 교내외 각종 행사 안내 및 초대권 발송
- 명절 때 쌀 · 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매년 동아대학교 달력 및 수첩 발송
- 본교에서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 및 동아대학보에 지속적으로 소개
- 본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에 등재 관리
- 교직원, 학생, 동문 및 교내 행사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후원의 집에서 실시하는 각종 이벤트를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전 교직원 메일 발송
- 특별한 행사 등 기사거리가 있을 경우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배포

## 가입문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E-mail : jeonkoko@dau.ac.kr  
 Homepage : http://fund.donga.ac.kr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 신규 후원의 집 안내

2016년 12월 ~ 2017년 7월

### 제163호 李家한우

'李家한우'는 이기대, 용호동 맛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가 한우, 이가 냉면, 이가 갈비탕이 주메뉴이고 1층에는 이가 식육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과 1층에서 4층까지 충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으니 멋진 광안리 풍경을 보며 단체 회식이나 가족 모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소** 부산 남구 분포로 66-17  
**문의** 051-622-9100

### 제164호 대가한우&파스타바나타

'대가한우&파스타바나타'는 1,2층에서 최고급의 한우를 맛 볼 수 있고, 3층에서 파스타, 피자 등 양식과 와인,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원스톱 레스토랑입니다. 멋진 낙동강변을 보며 가벼운 식사에서부터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대가한우&파스타바나타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소**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346  
**문의** 051-204-2700

### 제165호 예형님지리산산청흑돼지

'예형님지리산산청흑돼지'는 아미노산, DHC, EPA 함량이 높은 흑돼지를 청정지역 산청에서 키워 판매하는 직영 식당입니다. 또한 산사의 싱그러운 햇살과 바람을 담은 된장과 100% 국내산 신안천일염만으로 만든 방곡도염을 사용하는 착한 식당입니다.

**주소** 부산 사하구 동매로 13  
**문의** 051-204-5757

### 제167호 황태랑 삼겹이랑

'황태랑 삼겹이랑'은 황태요리 전문점으로서 황태탕, 황태찜, 황태구이 등 다양한 황태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그 맛을 인정받아 KNN '맛있는 오늘'에 부산을 대표하는 황태요리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황태요리 외에도 다양한 정식메뉴가 준비되어 든든한 식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주소**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63번길 9(동백연립)  
**문의** 051-206-2028

### 제169호 대물림 청송집

'대물림 청송집'은 장어구이 메뉴 한 가지로 50년의 전통을 이어온 부산의 대표적인 '맛집'입니다. 엄선된 국산 민물장어에 전통을 이어온 특제소스를 입힌 장어구이는 차별화된 맛과 풍미를 자랑합니다. 남성의 스테미너 음식으로는 물론 여성의 피부건강까지 책임지는 장어요리, 50년 전통의 대물림 청송집에서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주소** 부산 사하구 하신변영로 432  
**문의** 051-292-2173

### 제171호 조은참치

'조은참치'는 하단 지역의 대표적인 참치전문점으로서, 대중적인 참치코스부터 고급코스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참치 코스요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사장님의 푸짐한 인심으로 참치코스 주문 시 참치를 무한리필로 제공하는 것이 이 집만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간단한 점심 식사부터 단체회식에도 제격인 이곳에서, 동아 가족 여러분도 진짜 참치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1 프린스빌딩 1층  
**문의** 051-208-3735

### 제166호 최기택 송이아구찜

'최기택 송이아구찜'에서는 각종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단백질 및 칼슘의 함량이 높고 저지방, 저열량, 고단백의 건강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과 다수의 방이 마련되어 있어 부서별 회식 장소로는 물론 가족단위의 식사장소로도 적극 추천합니다.

**주소** 부산 사상구 엄궁로 206 섬진아파트 4차  
**문의** 051-322-8688

### 제168호 도리원

'도리원'은 고향의 향기처럼 그윽한 청정 멧돌 순두부로 요리를 하는 식당입니다. 직접 간 국산 콩으로 만든 믿을 수 있는 음식들과 함께 황토로 만든 식당 분위기에 취해 건강해지는 느낌마저 드는 웰빙 식당입니다.

**주소** 부산 사상구 엄궁로 8 대관령  
**문의** 051-317-8886

### 제170호 한방 남원추어탕

'한방 남원추어탕'은 최고의 재료만을 고집하는 사장님의 음식철학으로, 맛은 물론 손님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추어탕 전문점입니다.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추어탕과 정갈한 반찬까지, 사장님의 손맛과 정성이 듬뿍 담긴 건강한 추어탕의 맛을 여러분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 부산 사하구 하신변영로 159번길 13  
**문의** 051-201-0069

### 제172호 화국반점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화국반점'은 '백종원의 3대천왕'에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의 배경이 된 부산의 대표적인 맛집입니다. 특히 이 집의 대표메뉴 간짜장은 반숙달걀 프라이와 짜장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수많은 미식가들의 극찬을 받아 왔습니다.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맛집으로 손꼽히는 종식당 '화국반점', 동아 가족 여러분도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 부산 중구 백산길 3  
**문의** 051-245-5305

# 기부안내

21만 동문과 함께한 동아의 71년, 이제 21만 동문의 작은 기부로 100년의 역사를 향해 도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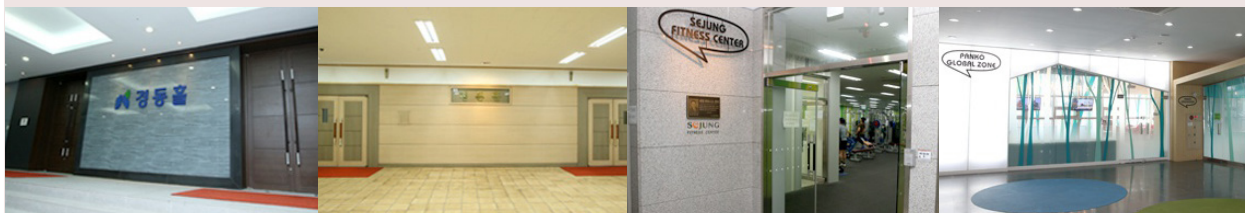
## 동아사랑 1인 1계좌 참여 운동

“동아를 향한 작은 기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동아인의 마음을 모으는 동아사랑 1인 1계좌는 매월 커피 두세 잔 값(1만 원)으로 동아 발전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소액 정기기부 운동입니다.  
※ 1계좌 당 1만원이 기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계좌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네이밍 도네이션

우리 대학에서는 건물, 강의실, 연구실, 실습실 등에 기부자들의 아호를 명명하여 Naming을 새기고 있습니다. 동아의 역사와 함께 할 뜻깊은 기부를 기다립니다.



### 경동홀

기부자 : 김재진  
경동간실(주) 대표이사  
기부액 : 4억 5천 1백만 원  
위 치 : 송학캠퍼스 본부건물 3층  
면 적 : 336㎡  
용 도 : 귀빈행사 및 강의

### 청춘홀

기부자 : 청춘 김만수  
동아타이어공업 회장  
기부액 : 2억 원  
위 치 : 송학캠퍼스 본부건물 1층  
면 적 : 336㎡  
용 도 : 귀빈행사 및 강의

### 세정휘트니스 센터

기부자 :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기부액 : 1억 원  
위 치 : 부민캠퍼스 국제관건물 지하1층  
면 적 : 229.88㎡  
용 도 : 재학생 및 교직원 심실단련

### 팬코 글로벌존

기부자 : 최영주 (주)팬코 회장  
기부액 : 3억 원  
위 치 : 부민캠퍼스 국제관건물 1층  
면 적 : 91.50㎡  
용 도 : 외국어 교육의 장

## 장학금 돌려주기

장학금 돌려주기는 후배들에게 본인이 받았던 소중한 장학금을 돌려주는 캠페인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거나,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한 후배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무한히 키울 수 있도록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합니다.

# 발전기금 납부방법

동아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 명문사학으로 비상하기 위한 힘찬 날갯짓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환경 개선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면학 분위기(기숙사 건립/도서관 확충/노후 건물 리노베이션)를 조성해 우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 특성화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

차별화된 교육·연구지원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본교가 강점으로 가진 특정분야에 집중투자하여 지역대학을 선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 교원확충 및 학술연구 활성화

21C 정보화 지식사회를 선도하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해외석 초빙, 우수 연구인력 양성, 학술연구활동 지원으로 교육과 연구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지원합니다.

### 장학금 지급

조성된 기금은 장학금으로 사용되며 경제력 문제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참여대상

동문, 교직원, 학부모, 재학생, 기업체, 기관, 단체 등 동아를 사랑하는 어느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내용

현금,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험실습기자재 등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어떠한 물품이라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현금으로 기부하실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방법

- 무통장 입금 |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고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부산은행 029-01-027228-1

농협중앙회 944-17-004326

국민은행 118201-04-168318

우체국 600783-01-008731

- 방문납부 | 동아대학교 송학캠퍼스 대외협력처(본부건물 3층 313호)로 내방해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공제 | 교직원에 한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CMS납부 |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동아대학교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수수료가 없습니다.

### 약정신청

전화·방문 약정 전화 혹은 방문해주시면 발전기금 약정과 납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대외협력처 TEL : 051)200-6060, 6012~3

온라인 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donga.ac.kr>)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약정서를 기입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팩스나

- FAX : 051)200-6015

### 우편으로 약정

- 주소 : (우)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대학본부 3층 313호)

BEYOND 동아!

학과 · 대학을 넘어 (Boundaryless)

대학시절을 넘어 (Entire Life)

한계를 넘어 (Y-Why not)

강의실을 넘어 (On&Off)

규제를 넘어 (New Ground)

타율을 넘어 (Design By Self)

DONG-A UNIVERSITY since1946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산동 3가)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www.donga.ac.kr](http://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http://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https://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https://instagram.com/donga_univ)

2017 Newsletter 「Dong-A Now」 vol.109

# 동아는 지금

Issue Focus 동아대학교, 또 한 번의 도약

Hot News 주요 행사 및 인물동정

Dong-A People 동문 및 교수, 학생

Happy Donation 발전기금 소식 및 미담